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전국적인 더위와 가뭄에 절수·절전운동 모두 함께 하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온 나라가 더위와 가뭄으로 들끓고 있다. 기상대 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 관측이라는 소식이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고 온 나라와 국민이 이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지가 늘 전해지고 있다. 더더욱 가뭄으로 인해 논과 밭이 짝 짝 갈라진 농촌의 모습을 매일 TV를 통해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을 더해 가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심각함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어려움을 하루 속히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로 인한 전력의 부족과 물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서 일부 지방에서는 제한 전력공급과 제한 급수까지 행해지고 있고 연일 방송과 신문에서는 절전과 절수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매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이번처럼 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해야 할 일인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김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

지난 7월 21일에 모였던 우리교회 교역자회의에서는 교역자들이 절전운동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앞장서 실천하기로 했다.

이날 마련한 지침은 우리 교회는 물론 전 교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며 여기에 소개한다.

(1) 에어컨의 실내온도는 28° 이하로는 내리지 맙시다.

(2) 교역자실에 적은 인원만 있을 때는 다소 더울더라도 에어컨을 한대만 가동합시다.

(3)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보는 즉시 소등합시다. 낮에는 교역자실 전등을 가급적 소등합시다(글씨 보는데 지장이 없는 한).

(4) 컴퓨터 전원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차단합시다.

(5) 교역자실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분은 소등상태, 에어컨이 가동되어 있는지 않은지, 컴퓨터는 전원이 켜져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을 잠금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이런 절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기는 모두가 되자.

2000만원 성금

7월 22일, KBS에

교회는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국 민이 농촌에 양수기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에 호응하여 성금 2000만원을 지난 7월 22일(금) KBS에 기탁했다.

구역예배·금요집회 한달동안 쉬기로

8월 26일(금)부터 다시 시작

교회는 계속되는 무더위와 각 성도들의 휴가, 교회의 각종 여름행사들이 진행됨에 따라 여름 한달동안 구역예배 및 금요집회를 쉬기로 했다.

구역예배가 쉬는 동안에도 매주 교구 모임은 계속되며 교구모임시간에는 예수 사랑 큰잔치에 대한 소식과 교구소식, 쉬는 동안의 구역공과를 다루게 된다. 한편 구역예배 및 심방이 쉬는 동안에도 각 구역장은 전화를 구역식구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계속하며 성도의 교제와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각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충현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

· 기간 : 1994. 6. 26 - 7. 31

· 접수 : 사무국(지원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94 예수사랑 큰잔치 10월 11일-15일, 태신자 대상으로 전도집회

교회는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획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평가를 통해 금년에는 새로운 방향의 계획을 마련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다소 행사 지향적이고 숫적 목표 달성측면에서 보다 내실있고 규모있는 양육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시에 많이 지적됐던 점인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천신만고로 교회에 초청한 사람들을 교회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태신자초청 후 양육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양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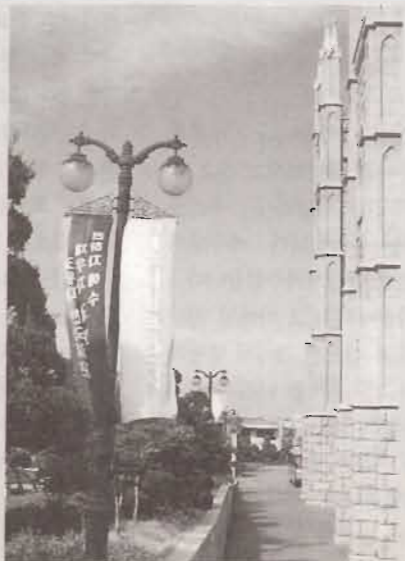
또한 이는 양육뿐만 아니라 초청 당시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잔치 당일 기존의 신자와 태신자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잔치 분위기는 날지 몰라도 선별해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도 연결이 안된다고 판단, 금년에는 예수사랑 큰잔치인 10월 16일 전 주간에 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집회를 열기로 했다.

10월 11일-15일까지 열릴 전도집회는 그동안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며 접촉해온 태신자를 초청하여 초신자에 맞추어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

전도집회는 기간중 매일 오후 7-9시까지 모이게 되는데 찬양과 간증 및 말씀이 있는 집회로 꾸며진다. 찬양

과 간증 및 말씀이 모두 불신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이 기회에 출석한 태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태신자를 관리해온 사람들이 이 전도집회 기간 중 반드시 함께 나와야 한다.

10월 16일 주일에는 [ⅢⅢⅣ부] 예배가 평상시와 같이 드려지고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전도집회시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사랑 큰잔치로 모이게 된다.



여름수련회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각 부서의 여름계절학교가 한창이다. 7월 3째주 간에는 영아부, 유치부 및 초등 1·2·3·4·5부와 중등 1·2부, 청년 1·2부, 예비대학생부가 각 교회당과 기도원에서 여름 계절학교를 가졌다. 또한 지난 주에는 초등6부와 고등부가 중현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지며 신앙의 수련을 쌓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가운데서도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하며 보람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수고들에 박수를 보내자.



좀 사회적인 분위기나 모든 환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4절) 편지를 쓴 사람은 요한이며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그의 간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간구의 근원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실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 외

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곱 교회만을 뽑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더욱이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전부가 이 일곱 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은혜와 평강이란

본문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흔히 쓰는 편지의 형식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헬라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공짜,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인사말이 나왔는가 하면 헬라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그거 공짜로 좀 안줘?” “은혜, 은혜” 그랬습니다. 또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샬롬, 샬롬” 합니다.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체험하는 결과이고 은혜는 평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평화는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부터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간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하는데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근원이 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즉 지금 역사속에서 우리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에도 계시고’,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이와’ 미래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둘째로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일곱 영광으로 표현했을까요? 일곱이라는 뜻은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성령을 일곱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이

것은 성령의 칠중활동력, 즉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데 얼마나 놀랍게 하시는지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주십니다.

셋째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대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

충현강단



문안과 송영

(계 1:4-8)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게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중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3. 찬양과 송영

5절을 보면 구속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방시켜주셨습니다.

6절에는 아주 놀라운 송영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왕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삼으신 목적은 우리가 잘나서도, 잘 믿었기 때문도, 행함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4. 재림의 주님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름타고 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켈리나 구름입니다. 켈리나 구름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가리웠던 구름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구름을 타고 가셨습니다. 켈리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리라는 말이 현재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는 현재시제로 표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중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임하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오셨으나 재림할 때에는 전세계적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자는 물론 로마 병정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형식적인 교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로 재림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땅에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먼저 변화가 되어서 들어올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애곡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라고 했습니다. 알파벳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알파벳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원래는 헬라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알파벳의 첫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파, 즉 태초에도 계신 분이요 오메가, 즉 심판 때에도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림의 주님, 알파와 오메가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동안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수련회를 마치며 / 청년1부 ▶

행동하는 예수꾼을 다짐하며

오 경 진
(청년1부 회원)

먼저 무더위로 폭썩지는 요즈음에 좋은 수련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행동하는 젊은 예수꾼'이라는 주제아래 교회에서 간단하게 개회예배를 드리고, 주제강의를 위해 특별히 모신 김양홍 목사님의 "깨끗한 청년"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 충분한 은혜를 받기 위해 그동안 오염되었던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위해 몽산포 해수욕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벨엘수양관으로 밤새달려 새벽 3시쯤 도착했다. 김정리를 한 뒤 급히 눈을 붙였다.

아침에 일어나 조별로 QT를 하고 교사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무공해 음식 등을 반찬으로 깔끔한 아침을 먹은 뒤 첫째날의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첫째날은 '자기 관리의 날'로 정하고 젊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 특히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파도치는 바다의 유혹에 빠져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을 바닷가에서 보냈다.

저녁시간에는 오후의 들뜬 마음들을 가라앉히면서 다시 주제강의 II로 들어갔다. 내용은 '헌신되어진 청년'이었다. 헌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헌신은 의무이며, 당연한 것이라는 도전과 함께 일이나 사람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열띤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그를 닮아가려는 젊은이로서 헌신을 위해 성령충만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 뒤로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생활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뜨거운 기도시간을 가졌다. 현상민 목사님의 인도로 개인기도와 짝기도 등을 했는데 서로 열싸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냈다.

둘째날은 '섬김의 날'이었다. '직업선택', '섬김의 모습들', '섬김과 은사'라는 제목아래 분임토의를 하였

다. 그래서 직장선택의 문제점과 기독교인으로써 올바른 직장생활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섬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섬김의 잘못된 모습들과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섬김의 자세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섬김과 은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은사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섬기지 못하였던가 즉, 행동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이었는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에는 또 다시 바닷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의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주제강의 III의 제목은 '비전을 가진 청년'이었다. 오늘날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단지 3%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서, 과연 내게 비전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으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비전이요, 어떻게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였다.

성경상에서 비전을 갖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보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고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성령충만하여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비전을 가진 자만이 매사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힘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행동하지 못함은 비전이 없기 때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비전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날을 멋지게 끝내기 위해 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서 Camp Fire를 하였다. 간단한 예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슴에서 파도치던 젊음이 이제는 손과 발로 옮겨지고 하늘같이 푸르고 화산같이 타오르고 대지같이 광활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으면서 수련회의 밤은 깊어갔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무더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빌어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임원과 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비전을 가진 자만이 매사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힘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행동하지 못함은
비전이 없기 때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비전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경다익

얼음냉수보다 더 시원한 것

최 인 근
(목사, 제14교구, 예배위원회, 교구위원회 지도)



요즘은 너무 더워 심방을 받는 성도들이 무척이나 힘들어 하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무더위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심방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본다.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더운지 흐르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또 흘러내린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땀내음이 온 몸에 젖어 있다. 더운 날씨로 모두가 선풍기 앞에 앉고 싶겠지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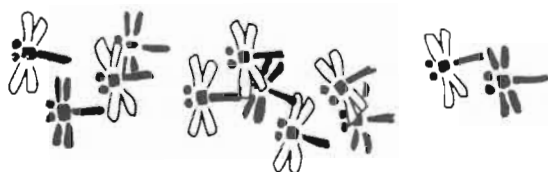
래도 자신의 더위보다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가 더울까봐 선풍기를 교역자에게로만 고정시켜주는데 더운 바람만 확확 불어온다. 그래도 선풍기 바람이라도 있으니 땀이 식는 것 같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더운 바람이 훈훈한 사랑의 바람으로 불어와 내 마음이 얼음냉수를 마신 것보다 더 시원한 사랑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 거린다.

하루는 심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큰 가방을 멘 낮익은 분이 땀을 쏟으며 무언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는 열심히 말을 하고 있었다. 오후 2시니 얼마나 더운가? 너무 더워 행인들도 땀하다. 이 더운날 무얼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하는 호기심에서 봤더니 우리 교회의 박집사님이다.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집사님 뭐하세요?" 했더니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목사님 더운데 심방하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장미 수고가 많으세요. 저도 전도하고 있어요.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하려고요. 좋은(그리스도의 편지)것을 보내준단니까 주소를 적어 주는데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낼게요." 감개 탄 얼굴, 마를 사이없이 흐르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너무나도 아름답다.

더위로 인해 걷기도, 숨쉬기도 힘이 들고 그늘만 있으면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싶은 날씨다. 이렇게 더운데 해가 진 다음 조금이라도 시원한 시간에 전도하시지 그러느냐고 했더니, 직장생활하는 박집사님은 교회의 계획에 맞추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낼려고 오늘 월차를 내셨고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특별기도까지 하시고 나오셨단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상하게요 전도하니가 땀은 많이 흐르는데 더운지도 모르겠고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하신다.

박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교회로 돌아오면서 내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가 숙여진다. 박집사님의 흘리는 땀은 사랑의 땀이요, 더위 속에 걷는 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실까를 생각하니 찬물로 등목을 하고 얼음냉수를 한컵 마신 것보다 더 시원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박집사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을 믿는다.



초등 6부 여름성경학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생활

7월 25 - 27일, 충현기도원에서

국민학교 부서로는 유일하게 초등6부가 숙식을 함께하는 여름성경학교를 충현기도원에서 가졌다.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가진 초등6부 여름성경학교는 늘 교회당에서 낮에만 하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한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교회당 위주는 주로 교실 교육이 주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기도원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진행함으로써 교실 교육과 공동체적 프로그램, 새벽과 저녁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국민학교 6학년의 심성과 상황에 따른 활동과 교육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하며 초등6부 지도 한용관 목사와 한영준 전도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장애아동 여름성경학교 및 사랑의 캠프 후원

교회는 한국밀알선교단에서 주관하여 오는 8월 8일-11일까지 충남 대천 충남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아동시설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여름성경학교 및 중증 장애인 사랑의 캠프를 후원하며 후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장애아동여름성경학교 및 사랑의 캠프를 충현기도원 및 충현교회당에서 했었다.

4교구 하기전도대 파송예배

4교구는 오늘 교구모임후 임마누엘연습실(본당 지하1층)에서 4교구 하기전도대 파송예배를 드린다.

전도대의 파송지역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의 북쌍교회로 어른 30여명, 어린이 50여명이 모이는 교회이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창인 목사님 : 더욱 건강을 주시사 늘 주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성종 목사님 : 5일(금) 전국 청장년 초청 금식 대성회 설교(오산리기도원) 부교역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에 평강과 가정 구성원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원사님에게 건강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사 대통령으로서의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4. 예수사랑 큰잔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사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5.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태국단기선교훈련(차양미아, 우돈타니) 참가자들이 건강한 가운데 선교비전을 다지게 하시고 현지선교사와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트막△식

◆ 초등1부는 오후예배를 매주 오전 11시 30분에 드리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기억하고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초등1부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임)

◆ 초등2부는 8월 14일(주일) 충현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모든 교사들은 1부 예배에 참석하고 초등2부의 모든 일을 마친 후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가질 계획이다.

◆ 초등4부는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전장(1-21장) 쓰기를 권장하고 있다. 기간은 8월 28일까지

◆ 초등5부는 '94예수사랑 큰잔치를 10월 23일(주일)에 갖기로 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 중등3부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하에 8월 3일 - 5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다양한 프로그램중에 '뉴에이지 운동과 그 대안'(김성호 강도사)과 이만열 교수의

'민족 역사, 교회 그리고 민족의 꿈'이란 특강이 돋보인다.

◆ 대학부는 1995년도 대학부의 팀장으로 일할 형제 자매를 공개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 5가지 영역별로 나누어 공부하는 각 영역내의 팀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50명을 뽑는다. 대학부는 지원한 사람을 5개월간 훈련시켜 팀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1부는 8월 1-4일까지 보행 제35사단 교회로 하기 전도를 나간다. 인솔총책임은 청년1부 지도인 현상민 목사.

◆ 장년1부는 8월 12 - 13일, 충현기도원에서 '부활신앙을 갖자'라는 주제하에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 장년3부는 8월 15 - 16일, 갈릴리홀에서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주제하에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정규남·김용기 목사

◆ 소망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주제하에 8월 18일 - 19일, 양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소망부 지도인 김찬곤 목사.

◆ 에바다(학생)부는 여름방학을 맞으며 학생들의 부족한 학교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에바다부 공부방'을 마련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9일(4주간)까지 화·수·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이다.

◆ 에바다(성인)부는 8월 14 - 16일까지 여름수련회를 앞두고 마무리 준비에 바쁘다. 장소는 충현기도원이며 강사는 이준우 전도사. 또한 8월 2 - 5일까지 한국기독교연합회 선교회 주최로 팻볼회관에서 갖는 농악인전도대회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권하고 있다.

◆ 새가정부는 '94예수사랑 큰잔치를 8월 21일에 갖기로 하고 전회원 1가정 이상 초청하기로 정하고 준비가 한창이다.

직원모집

금번 교회사무국에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참신한 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직종 : 교환직(교환사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으로서 세례교인)
2.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 첨부), 교환사 자격증 사본
3. 제출기한 : 7월 31일
4.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환 402)

◆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천 한 나
(초등4부 사랑8반)

아침에 깨어있는 발걸음으로 차를 타고 교회에 갔다. 첫째날과 둘째날, 셋째날 중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날은 둘째날이었다. 이날은 오후 2시에 갔다. 전로익정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구원의 물, 전도의 물, 예배의 물, 기도의 물, 협동의 물 등이 있었다. 협동의 물에서는 퍼즐 맞추기를 하였는데 모두다 협동을 잘해 2등이 되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전날에는 성경을 하였는데 각자 자기과를 위해 너무나도 잘해 주었다. 소망과가 1등을 한게 기뻐요 축하해 주고 싶었다. 그날밤은 회개와 헌신의 밤으로 보냈다. 예배까지 지은 많은 죄를 종이에 적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었다.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친구들과 떠들다 혼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교회에서 자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체조를 하고 식사를 했다. 정말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보람있었다고 생각한다. 꼭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천로익정에서 배운 전도를 꼭 실천하도록 하겠다. 여름성경학교가 끝나자 아쉬운 마음이 떠날 것 같지 않았다.

'94 태국단기 선교훈련팀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파송식

지난 5월말까지 태국단기선교훈련팀 35명이 모집, 선발되어 2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2시간씩 영성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노봉현 목사, 김병진 선교사, 김성태 목사 등 대수의 선교훈련 전문가들의 특강과 찬양훈련, 태국어 훈련, 선교드라마 인형극, 율동, 불교문화 이해, 타문화권 선교사례 연구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단기선교를 준비해 왔다.

이번 태국 단기선교훈련은 태국 한국총회선교회 김대홍 선교사, 김문수 선교사 팀과 협력하여 8월 2일(화) - 11일(목) (9박 10일)까지 태국의 북서부 매솔, 메라 지역의 태안마 국경 난민촌 지역, 카렌족 사역과 동북부 우돈타니, 당카이 중심지로 현지 지역교회 협력사역, 라오스 국경 난민촌 사역 등이 준비되고 있다.

태국 단기선교훈련팀의 구성원은 의료진 6명, 미용사 2명, 음악사역자 3명, 대학생 10명, 청년 9명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찬양전도, 노방전도, 개인전도, 의료봉사, 이미지

봉사, 국제활동, 제물활동, 어린이전도, 초청 전도집회 등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단기선교훈련팀의 사역을 위하여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의료, 생필품 수집에 협력해주셨고 기영약품(최기홍-집사), 한서제약(권철-집사)에서 다량의 의약품, 헌트(주)에서 의료 20점, 오투기식품에서 라면 50박스를 기증해주어 현재 난민촌에서의 의료봉사, 국제사역에 진요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태국단기선교훈련팀 파송식이 있는데, 훈련팀을 위해 긴급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 ① 효과적인 단기선교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② 태인들이 불교문화권과 데위에 잘 견디어 지치지 않도록
- ③ 안전사고가 한전도 생기지 않고 모두가 성령, 평강, 기도로 충만하도록